광주 불로동 거리 세부도

광주 불로동의 변신

유흥업소 밀집 '놀자판'서 패션·카페거리로 탈바꿈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풍 웨딩포토 등 촬영 명소 각광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불로동 거리 모습.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와 옷가게들이 늘어나면서 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심 공동화로 침체됐던 유흥가 골목이 패션과 카페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빛고을신협과 대광식당 사이 170m에 이르는 골목길. 속칭 '콜박스 사거리'로 불렸던 이 곳 주변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이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충장로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던 이 거리에 최근 2~3년 사이 카페와 보세 옷가게 창업을 위해 20~30대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아연 활기가 돌고 있다.

절제미가 돋보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풍의 카페 등 젊은층의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를 앞세운 가게들이 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웨딩촬영이나 쇼핑몰 운영자들의 패션화보 촬영 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불로동 거리에서 웨딩촬영을 했던 노수영(여·34·수원시)씨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많이 몰려있어 거리가 인상적이었다"며 "웨딩포토도 세트장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 좋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거리에는 카페 6곳, 보세 옷가게 37곳이 성업중이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오픈을 준비중인 가게도 4곳이나 된다.

이곳에 젊은 사장들이 몰리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위치와 점포 크기에 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보증금 1천만~2천만원에 월 100만원대 전후에서 33㎡(10평) 크기의 가게를 얻을 수 있다.

메인 거리로 불리는 충장로 1가와 황금동 메가박스 사거리(구 런던약국 사거리)에서 점포(33㎡ 기준)를 얻는 비용의 5분의 1수준이다.

동구 광산동 그랜드부동산 김태형 대표는 "창업비용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젊은층이 많이 찾으면서 몇몇 문제 있는 건물을 제외하면 공실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1년 사이 불로동거리 임대료는 평균 20~30% 가량 상승했고 덩달아 인근 점포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좋지 않아 창업자들에게 기피대상인 지하매장도 잘 나간다.

지하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이은주씨는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하매장을 선택했는데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며 "패션거리로 변모하면서 대학생들은 물론 신세대 주부들도 많이 찾아와 매출도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손수 인테리어를 해 창업비용을 줄인 카페들도 많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카페 '빨간문' 김지수 사장은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비어 있던 한옥을 빌려 직접 실내장식을 한 뒤 1년 전 문을 열었다"며 "불로동 메인 거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고 테이블도 4개밖에 안되지만 하루 매출이 평균 15만~2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양동·여수 교동시장

문화·관광 테마시장 만든다

광주 양동시장과 여수 교동시장(남산시장)이 관광명소로 탈바꿈 한다.

중소기업청은 광주 양동시장과 여수 교동시장 등 전국 대표 전통시장 6곳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등 2곳을 국제상인시장으로 특성화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시장에는 시장당 최대 2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 제일의 역사와 규모를 지닌 광주 양동시장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와 연계해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어·오리탕·쇠고기 육회 등 지역특화 음식을 집중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어진 풍물단, 난전 유람단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수 교동시장은 2012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시 재생 프로그램과 주변 1Km 이내의 돌산대교, 진남관, 연등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상품화 한다. 서대회·금풍생이·붕장어 등 지역특산 음식을 특화하고 테마마차·석축폭포를 설치해 주변을 단장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문화 콘텐츠, 재난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장학금 20억 돌파

대학생 등 3284명 혜택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

광주은행의 장학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재)광주은행장학회(이사장 송기진)는 16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 79명에게 1억4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급액 포함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장학회 설립 후 29년 동안 모두 20억5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혜 인원도 3천284명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또 지난 2003년~2007년까지 (재)여수 인재육성 장학회에 5억7천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기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해 프리미엄 '매취순 10년 500ml' 출시

보해양조가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 10년 500ml'〈사진〉를 1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매취순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매취순 10년 3L'에 이어 두번째 판매되는 과실주다.

'매취순 10년 500ml'는 국산 최고급 청매실을 10년간 숙성시킨 고급 매실주로 맛과 향이 깊고 풍부하며, 500㎖ 용량으로 웰빙과 실속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중후함이 묻어나는 사각병에 매화문양을 새겨 넣어 품격을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매취순 10년 500ml의 알코올도수는 18도로 출고가는 5천610원.

보해 관계자는 "'매취순 10년 500ml' 출시를 통해 10년 숙성 매실주의 깊은 맛과 품격을 부담 없는 용량과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해만이 내놓을 수 있는 프리미엄 매실주를 통해 국내 매실주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